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9.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獨 대통령, 뮌헨올림픽 테러 유족에게 50년만에 사과

- 9.5 獨 「슈타인마이어」 대통령은 뤼르스텐펠트브루크에서 열린 뮌헨 올림픽 테러* 50주년 추모식에서 “당시 선수단에 대한 보호와 진상 규명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독일을 대표해 용서를 구한다”며 사과
- * '72.9.5 뮌헨올림픽 당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‘검은 9월단’ 대원이 이스라엘 선수촌을 기습 점거하고 인질극을 벌여 이스라엘 대표선수 등 11명 사망

미주

○ 美 뉴욕주, 타임스퀘어 등 공공장소 총기 소지 금지

- 9.1 뉴욕주는 지난 7월 가결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타임스퀘어·지하철·학교 등 상당수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소지가 금지되고, 총기 면허 취득 조건(안전교육 과정 수료, SNS 계정 제출)도 강화
- * 뉴욕주 버팔로에서는 지난 5.14 18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0명 사망, 3명 부상

○ 캐나다, 연쇄 흉기 난동으로 10여명 사망

- 9.4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북동부 외곽에서 형제에 의한 연쇄 흉기 난동이 발생해 용의자 1명(데미언 샌더슨, 31세, 형) 포함 11명 사망·19명 부상,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 「마일스 샌더슨」(30세, 동생) 추적 중
- * '20년 노바스코샤주 총기난사로 22명이 사망한 이후 캐나다 최대 인명피해 사건

○ 美 「바이든」,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반대

- 9.5 언론은 美 「바이든」 대통령이 의회 등의 지속적인 요구*에도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,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염려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
- * 美 상·하원은 「낸시 펠로시」 하원의장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결의안 제출

아 · 태평양

- 아프간, 모스크 인근 폭발로 탈레반 고위 성직자 등 18명 사망
 - 9.2 외신은 아프간 서부 헤라트市의 모스크 인근에서 합동 예배 도중 폭발이 발생해 탈레반 고위 성직자·시민 등 최소 18명이 사망하였으며, 아직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
 - * ISIS는 최근(8.5~6) 아프간 카불에서 폭탄테러 자행(16명 사망, 40명 부상)
- 아프간, 駐러시아 대사관 인근 자폭테러로 2명 사망
 - 9.5 아프간 수도 카불의 駐러시아 대사관 인근 자살폭탄 테러로 외교관 포함 6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, 테러범은 대사관 입구까지 접근을 시도하다 탈레반 경비대에 의해 사살
 - * 사건 직후 ISIS는 同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였으며, 용의자 신상은 미확보
- 경찰청, '테러자금 송금' 시도 키르기스스탄인 검거
 - 9.2 언론은 지난 7월 경찰청·국정원이 알카에다 연계조직 'KTJ'*에 자금 송금을 시도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(男, 40대)를 「테러방지법」 등 위반 혐의로 검거, 지난달 18일 강제추방했다고 보도
 - * KTJ(카티바 알티하우드 왈지하드) : 전투원 200~300명 추정('19년 UN안보리 보고서)

중 동

- 사우디, 후티 반군 연계 예멘인 5명 '테러리스트' 지정
 - 9.1 사우디 국가안보국은 자국에 대한 테러를 목적으로 이란으로부터 무기 밀반입 관여 및 드론 교육을 받는 등 후티 반군과 연계된 예멘인 5명을 테러리스트 명단에 추가하고, 이들에 대한 자산 동결
 - * 사우디는 '14.3월 후티 반군을 테러단체로 지정, 이들을 이란의 대리軍으로 간주

'72년 '검은 9월단'의 뮌헨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 인질테러

- '72년 뮌헨 올림픽 기간(8.26~9.11) 중이던 9.5 새벽 4시경 운동복 착용 무장괴한 8명이 올림픽 선수촌 담장을 넘어 이스라엘 선수 숙소에 난입
 - 우선 이스라엘 선수 2명을 살해 후 해당국 선수·코치·심판 등 9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
 - 이들은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무장 저항단체인 '검은 9월단'이라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 포로 234명의 석방 요구
- 서독 정부는 2회에 걸친 인질구출 작전을 전개
 - 먼저, 경찰들을 선수로 위장시켜 진압작전에 투입했으나, TV 생중계로 이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1차 작전 실패
 - * 투입 경찰들은 운동복 내부의 방탄복을 노출할 정도로 테러 진압 경험이 쏘無
 - 이후, 테러범들의 헬기 제공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며 이들이 기체 접근시 저격하려 했으나 상호 총격전이 발생하며 인질 전원이 사망
 - * 독일 정부는 '228.31 테러 희생자 유족 11명에게 2,800만 유로(약375억원) 배상 합의
- 서독 정부는 인질구출 작전에서 대응 미흡 등 총체적인 취약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후 대테러부대인 국경경비대(GSG-9)을 창설하고, 최초의 경찰부대용 전문 저격총인 H&K PSG1* 등을 개발

<반자동 저격총 H&K PSG1>

- (생산) 헤클러 & 코흐 社(1970년대)
- (제원) 중량 7.2kg, 길이 1,208mm, 총열길이 650mm, 구경 7.62mm, 장전방식 5발/20발들이 탄창
- (특징)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반자동 저격총으로 알려져 있으며, 망원 조준경에 발광기능이 있어 야간사격 가능, 저소음 노리쇠 잠금장치 장착
- (사용국가) 독일, 영국, 일본, 한국 등